‘훼손’ 목포 갓바위 보존 어떻게

“풍화·침식 과정 있지만 형상은 큰 변화 없어”

용역팀 “주변식물 제거, 자연상태 유지도 가치”

갯바람과 파도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목포의 명물 ‘갓바위’의 보존은 인위적인 보수.보강보다는 주변 식물 제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갓바위 보존대책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노열 교수)은 전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갓바위 갓부분의 균열은 물리적·화학적 풍화 등 여러 원인에 의해 형성됐으며, 이후 파랑 또는 태풍에 의한 폭우와 강풍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장시간 계속해서 풍화와 침식현상이 진행될 경우 탈락 또는 붕괴의 가능성도 있지만 형상은 2009년 2월 이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갓바위는 긴 시간 동안의 풍화와 침식과정에 의한 변화 과정 중에 있다”면서 “주변 식생을 제거하고 인위적인보수·보강 보다는 자연성을 유지한 자연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도 이용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또 석조문화재에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인 AY103(경화제 HY956) 또는 접착 및 충전용으로는 L-40 Fast를 이용해 접착 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연기념물 제500호인 갓바위는 풍화작용과 해안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로 인공적인 조작없이 순수 자연적인 과정으로만 빚어진 자연 조각품이다.

하지만 상단부와 주변 일부가 파도, 햇빛, 임의적인 훼손 등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미세한 균열과 탈락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갓바위를 포함한 일대 암석을 분석하고, 기후·지형·생물상의 변화가 갓바위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또 보존·활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갓바위 침식방지대책과 주민참여거버넌스 강화 등 10개 세부과제를 개발해 갓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갓바위의 학술적·경관적 가치와 자연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원인 파악

한빛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의 콘크리트 방호벽에서 구멍이 발견돼 원전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콘크리트 방호벽은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로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막는 마지막 차단벽 역할을 한다.

27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제16차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방호벽 일부가 비어 구멍이 발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방호벽은 120㎝ 두께로 내부에 빈 공간이 없이 콘크리트로 꽉 차 있어야 한다.

하지만 원전 측이 정비 기간 중 조사한 결과 상부 원형돔과 하부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격납건물 70m 지점의 안쪽 콘크리트가 ‘폭 20㎝·깊이 14㎝’ 넓이로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측이 샘플 58개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빈 공간은 57개가 발견됐다. 문제의 빈 공간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사이 한빛 4호기를 건설할 당시 적용된 공법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전 측은 한빛 4호기 건설 당시 콘크리트 타설이 일부 꼼꼼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빛 4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발견된 콘크리트돔 방호벽 내부를 감싸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 철판(CLP) 부식 원인도 이같은 빈 공간 때문에 철판이 수분과 산소에 노출돼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한빛4호기 CLP는 점검 결과 일부 철판의 두께가 설계두께(6mm)의 90%인 5.4mm에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소중한 빗물 2017 빗물축제 및 물순환 시민문화제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빗물축제 시민기획단 비엔나의 우산과 음악을 이요한 플래쉬몹이 펼쳐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해외 부실 매각 즉각 중단 촉구”

전남 농어촌버스업계

전남 농어촌버스업계는 27일 오전 전남버스조합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결사반대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함평·영광·강진·곡성·보성·장흥·해남 교통, 군민·담양운수, 고흥여객 등 전남지역 농어촌 버스업체 10개사 대표와 전남버스조합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농어촌버스운송업계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실 매각 중단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국책은행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하루 아침에 파산해 사라지고 말았다”며 “산업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할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금호타이어 해외 부실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보호와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금호타이어 졸속 매각에 반대했던 대선 공약을 적극 이행”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 핵심 공약 임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의 부실 매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며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감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심과 산업은행의 부실매각으로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되면 지난 57년간 이룬 금호타이어의 모든 자산과 기술이 송두리째 중국에 넘어가고, 과도한 차입과 브랜드 저하로 과거 쌍용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임직원 전체와 지자체, 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농어촌버스업계도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매각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장흥서 드론 경로당 지붕 추락…인명피해 없어

27일 오전 7시52분께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한 마을 경로당 지붕 쪽으로 드론(무인항공기)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경로당 지붕 일부가 파손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추락한 드론은 고흥 우주항공센터에서 시험 비행 중이었으며 길이 30m, 무게 140kg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론이 경로당 지붕을 스치고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종민 기자

보이스피싱 조선족 절도책 구속

나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노인을 속여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선족 황모(2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나주시 A(80·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현금 1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도책을 맡고 있는 황씨는 다른 조직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빼내가려고 한다”고 속여,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북 등에서 4건, 총 1억원 가량을 같은 수법으로 훔쳤다는 황씨의 진술을 확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달 전 공사’ 아파트 지하펌프실 등 침수

광주 한 아파트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하펌프실이 침수돼 66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지하 2층 펌프실(66㎡)의 배수관이 파열돼 차량 등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펌프실에서 새어나온 물은 지하 1층 주차장(68면 규모)까지 차올랐으며, 북구와 소방당국 관계자 등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차오른 물은 20㎝~30㎝가량 높이로 추정되며, 관리사무소는 침수 차량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아파트 8개동 66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 2000여명(추정)이 출근시간대 샤워 등을 하지 못 하는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지하펌프실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끌어온 물을 빈 용기에 담고, 식수를 제공받고 있다.

북구 등은 “한달 전 배수관 공사를 했다”는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하에 찬 물을 호스 6개로 빼내고 있다”며 “물을 빼낸 뒤 배수관 공사 시공업체와 정확한 침수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강도짓 사회복무요원 구속

순천경찰서는 26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사회복무요원 장모(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5분께 순천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7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인 장씨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업주에게 사과하려고 편의점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성추행당했다” 여고생, 학원 강사 신고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A(17·여)양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오산시의 한 미술학원 강사 B(30대)씨에게 학원 열쇠를 돌려주려고 갔다가 B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A양은 B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함께 영화를 보다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일이 벌어진 뒤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조만간 B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